



글로벌 ITS동향

- ◆ (글로벌) 개인형이동수단(PM) 회사 Helbiz, 동종 회사 Wheels 인수
- ◆ (필리핀) Indra, 필리핀 최장거리 대교 세부-코르도바 대교(CCLE) ITS 설계
- ◆ (미국) Uber, Waymo와 자율주행 트럭 파트너십
- ◆ (미국) 텍사스주, 버스-자전거공유 통합앱(Transit app) 출시

◆ (글로벌) 개인형이동수단(PM) 회사 Helbiz, 동종 회사 Wheels 인수

- 개인형이동수단(PM) 회사 Helbiz, 동종 회사 Wheels 인수
- 2015년 설립된 미국 모빌리티 회사 Helbiz는 전동킥보드, 전기자전거, 전기스쿠터 등 공유 모빌리티 사업 주력
- 2018년에 설립된 미국 모빌리티 회사 Wheels는 뉴욕 호놀룰루, LA 등 미국 시장에 전동킥보드 8,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, 좌식(sit-down) 전동킥보드 및 통합 헬멧 공유 모빌리티 등 차별성을 가진 서비스 제공
- Helbiz 대표 Salvatore Paella는 "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수익을 두배로 높이고, 미진율을 높일 것"이라고 밝힘
- HWheels 인수합병은 2022년 말에 완료될것으로 예상하며, 전부 주식거래로 이뤄짐



※ 출처 : <https://whal.eu/ME3KxarE>

◆ (필리핀) Indra, 필리핀 최장거리 대교 세부-코르도바 대교(CCLE) ITS 설계

- 정보통신 회사 Indra, 필리핀 최장거리 대교 세부-코르도바 대교(CCLE)에 ITS 설계
- 1993년 설립된 스페인 정보통신 회사 Indra는 교통, 항공, 방산 분야 정보통신기술 및 솔루션 구축 사업에 주력
- Indra는 CCLE의 모회사인 Metro Pacific Tollways Corporation의 기술 파트너이자, 필리핀 최대 고속도로 운영자임
- 필리핀 세부-코르도바 대교는 2022년 4월 27일 개통된 총길이 8.9km의 최장거리 대교이며, 일교통량은 약 5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
- Indra는 통합교통 시스템 및 도로인프라 관리 플랫폼 설계 예정
- 해당 시스템과 플랫폼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구간 교통과 안전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관리자의 대교 운영 및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
- 추가적으로 해당 ITS 시스템은 CCTV, 번호판인식, 속도감지기, 가변안내표지판(VMS), 긴급구조전화 등을 포함
- Indra 관계자는 "이번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세부와 코르도바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, CO2를 절감시킴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의 한 부분이 될것"이라고 밝힘

※ 출처 : <https://whal.eu/ME3KxarE>

◆ (미국) Uber, Waymo와 자율주행 트럭 파트너십

- 라이드셰어링 회사 Uber, Waymo via와 자율주행 트럭 파트너십 체결
-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된 Uber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라이드셰어링(Ride-sharing)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음식배달, 택배, 화물 운송 등의 영역에 사업 확장 중
- Waymo는 구글에서 시작된 자회사로서 2016년 법인으로 독립했으며, Waymo via는 15t 이상 자율주행 트럭으로 운영하는 장거리 물류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 중
- Uber는 Waymo via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화물운송플랫폼(Uber Freight)에 연결시켜 자율주행 트럭 도로망 배치 계획
- Waymo via의 책임자는 "이번 Uber - Waymo 파트너십을 통해 Uber Freight의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를 조기 실현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힘

※ 출처 : <https://whal.eu/NE800aKE>

◆ (미국) 텍사스주, 버스-자전거공유 통합앱(Transit app) 출시

-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, 버스-자전거 공유 통합앱(Transit app) 출시
- 샌안토니오 시민들은 버스-자전거 공유 통합앱(Transit app)을 통해 버스, 250곳의 전기자전거 정류장 및 50곳의 자전거 정거장 이용
- Transia app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며, 간편하게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- 또한 Transit app은 샌안토니오시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, 몬트리올, 디트로이트 등 타 12개 지역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- 프로젝트 관계자는 "지속가능 교통을 통해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며, 이번 버스-자전거 공유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것"이라고 밝힘

※ 출처 : <https://whal.eu/In0ewx2E>